

아제르바이잔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1
3. 한국과의 주요이슈 /1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2
2.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3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4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6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7
관세제도 /8
주요인증제도 /9
통관운송 /10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11
- 외국기업 투자동향 /14
- 우리기업 투자동향 /15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15
- 진출형태별 절차 /16
- 투자입지여건 /19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22
- 조세제도 /23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25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물가정보 /26
- 2.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28
- 3. 진출 성공 /28
- 4. 이주정착 가이드 /29
- 5. 출장가이드 /30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아제르바이잔(Republic of Azerbaijan)
면적	86,600km ² (대한민국의 약0.9배)
수도	바쿠(184만 명)
인구	약 860만 명
민족	아제르바이잔인(90.6%), 다게스탄인(2.2%), 러시아인(1.8%), 아르메니아인(1.5%), 기타 20여 개 소수민족(3.9%)
언어	아제르바이잔어(제 2외국어 - 러시아어)
종교	이슬람교(93.4%), 러시아 정교(2.5%), 아르메니아 정교(2.3%), 기타 (1.8%)
시차	서울시간 - 4~5시간
화폐단위, 환율	Manat(마나트) 1달러=0.815마나트

2. 정치 사회 동향

-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의 지도 하에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005년 11월 실시된 의회선거에서 집권여당(New Azerbaijan Party: NAP)이 전체 의석의 과반수가 넘는 63석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금년 10월 현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가운데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은 2008년 대선 승리를 위해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경제 개혁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향후 석유산업 발전에 따른 오일 머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 에너지분야 발전과 산업 다변화, 국민 생활수준 향상(빈곤층 퇴치) 등의 성공 여부가 정국 안정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아울러 정부관료의 부정부패 만연, 미약한 법치주의 기반 등도 향후 정국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외교 수립 및 대사관 개설

연도	주요 사항
1992.3.23	외교관계 수립
2006.03	주 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1 인공관) 개설(류광철 대사 대리)
2006.12	류광철 주아제르바이잔 특명전권대사 임명
2007.03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관 개설(Rovshan Jamshidov 대사)

자료: 외교통상부

□ 주요인사 교류

- 05. 11 맘마디아로프 외교장관 방한
- 06. 5 노무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공식방문
- 06. 6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6. 8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6. 10 알리에프 산업에너지부 장관 방한
- 06. 11 맘마도프 교통부 장관 방한
- 07. 4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방한(6 개 부처 장관 수행)
- 07. 5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7. 6 헤이다로프 비상사태부 장관 방한
- 07. 8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7. 9 아사도프 국회의장 방한
- 07. 9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아제르바이잔 방문
- 08. 4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08. 5 한승수 국무총리 아제르바이잔 방문

주요 협정·약정 체결현황

체결 협정	체결 약정
○ 2006. 5 월: 문화협정 ○ 2006.5 월: 항공협정 ○ 2007.4 월: 투자보장협정(발효대기 중) ○ 2007.9 월: 이중과세방지협정(가서명)	2006 년 5 월 노무현 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방문, 2007 년 4 월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방 한 등을 계기로 경제 분야별 약 30 여 개 협력 약정 체결

□ 아제르바이잔 거주 한인

아제르바이잔 거주 한인은 약 150 여명 이며, 주로 한국어 교사, 태권도 사범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6.5 월 노무현 대통령 방문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주 재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 경제동향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유전 개발로 인한 오일 달러 유입으로 2007년 CIS 내 최고의 경제성장률인 25.0%를 기록하며 급성장 중이다. (2000년 이후 GDP 성장률이 줄곧 10%를 상회)
- 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터키를 잇는 BTC 파이프 라인 건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5년 5월 완공)
- 2008년에도 석유/가스 생산 및 수출 급증에 따라 13.5% 이상의 높은 GDP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오일 산업의 호황은 통신, 운송, 건설 분야 spillover 효과를 낳고 있으며 다시 이러한 사회 인프라 개발이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한편, 오일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제조업이 전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약 60%에서 '07년 22%로 급감하였다.
- 높은 인플레이션, 인건비 인상 및 마나트화 통화절상은 非 오일 부문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2007년 화학산업 생산 및 수출은 급감 현상을 보였다.

나. 경제현황(2007년 주요 경제지표)

GDP	302억 달러(▲25.0%)
1인당GDP	약 3,501 달러
GDP 증가율	25.0%
소비자물가상승률	16.7%
외채	약 24억 달러
교역규모	수출: 194억 달러, 수입: 57억 달러
주요 교역품목	○ 수출 - 석유제품(81.4%), 식료품(8.4%), 금속제품(3.0%), 운송수단(1.7%), 화학제품(1.5%), 플라스틱&고무제품 (1.2%) 등 ○ 수입 - 기계류(30.2%), 식료품(16.0%), 운송수단(15.5%), 금속제품(12.4%), 화학제품(5.9%), 석유 및 광물(5.3%)

자료: EIU Country Profile 2008 & C1untry Report 2008.5월(2007년 기준)

2.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아제르바이잔은 구 소련 9 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발효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FTA 체결국	체결일
1	러시아	1992. 09. 30
2	우크라이나	1995. 07. 28
3	그루지야	1996. 03. 08
4	투르크메니스탄	1996. 03. 18
5	우즈베키스탄	1996. 05. 27
6	카자흐스탄	1997. 06. 10
7	타지키스탄	1997. 08. 13
8	키르기즈스탄	2004. 01. 12
9	백러시아	2004. 03. 31

자료: 아제르바이잔 외무부

이 외에 아제르바이잔은 1999 년 EU 와 동반자적 협력관계구축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은 아제르바이잔 법체계를 EU 법체계와 합치, 지적재산권, 투자자산, 사유재산 보호, 아제르바이잔을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으로 대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아제르바이잔은 EU, 일본, 미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우대를 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2009 년 하반기 WTO 가입을 목표로 가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 아제르바이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7년도 수출통계(표1 참조)를 보면 총 수출액은 약 61억 달러이며 석유 제품이 전체의 81.4%(약 49억 달러) 점유하고 있다.
 - 통계청 수출액에는 AIOC에서 해외로 판매한 오일 수출액이 제외된 것으로 이를 포함한 실질 총 수출액은 194억 달러로 추정된다.
 -
- AIOC: 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의 약자로 영국 BP사가 주도하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석유 및 가스 국제 컨소시엄.
- 식료품 수출은 석유제품 다음으로 높은 약 5억 달러로 1994년 이래 최대치인 8.4% 차지하고 있다. 반면,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수출은 급감하였다.

아제르바이잔 부문별 수출 현황(2007)

(단위: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Oil & oil products	3,337	5,390	4,935
% of total	76.8	84.6	81.4
Food products	327	322	507
% of total	7.5	5.1	8.4
Metals	106	150	182
% of total	2.4	2.3	3.0
Transport equipment	272	85	101
% of total	6.3	1.3	1.7
Chemicals	132	193	93
% of total	3.0	3.0	1.5
Plastics & rubber	72	101	72
% of total	1.7	1.6	1.2
Total incl others	4,347	6,372	6,058

Sourc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 자국 통화절상 및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로 소비재 수입은 꾸준히 증가(아래 표 참조)하고 있다.

- 식료품 수입 비중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식료품 가격 상승 및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에 따른 외국산 식료품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부문별 수입 현황(2007)

(단위: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Machinery & equipment	1,397	1,547	1,725
% of total	33.3	29.4	30.2
Food products	443	557	911
% of total	10.6	10.6	16.0
Transport equipment	419	878	882
% of total	10.0	16.7	15.5
Metals	489	613	705
% of total	11.6	11.6	12.4
Chemicals	183	249	335
% of total	4.4	4.7	5.9
Oil & mineral products	500	613	305
% of total	11.9	11.6	5.3
Total incl others	4,200	5,265	5,709

Sourc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 반면,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 중단에 따라 석유 및 광물 수입은 큰 폭 감소하였고 총 수입 규모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감소하였다.

주요 교역 상대국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Exports to:					
CIS	12.9	17.5	20.8	14.6	18.2
Russia	5.7	5.8	6.6	5.4	8.7
Georgia	4.3	5.2	4.8	4.5	5.7
Non-CIS	87.1	82.5	79.2	85.4	82.8
Turkey	4.1	5.1	6.3	6.1	17.4
Italy	52.0	44.7	30.3	44.7	15.5
Iran	1.9	4.2	3.8	4.6	7.2
Imports from:					
CIS	32.4	33.3	34.4	39.9	33.3
Russia	14.6	16.2	17.1	22.4	16.6
Ukraine	4.5	4.8	5.4	6.0	7.7
Non-CIS	67.6	66.8	65.6	60.1	66.7
Turkey	7.4	6.4	7.5	7.3	10.3
Germany	6.5	5.6	6.1	7.7	7.8
UK	10.9	12.0	9.2	8.6	6.8

Sourc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2002년 이후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 증가 추세 지속
 - 유전개발 및 고유가로 인한 수입증대로 우리나라의 對 아르바이잔 수출은 점차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06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 2007년 4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답방을 계기로 수출 증가세 가속화되고 있다.
 - 2007년 수출호조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엘리베이터, 무선통신기기, 의료기기, 건설 중장비 등이며, 2008년 초에도 그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 2008년 수출증가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9,132%), 건설중장비(8,537%), 화물자동차(1,484%)이다.

우리나라의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입 동향

구분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교역규모	수출	백만 달러	4	11	19	32	47	130
	수입	백만 달러	0	0	1	0	0	316
무역(상품)수지		백만 달러	4	11	18	32	47	-185
수출증가율		%	4.0	189.9	74.4	68.6	46.9	175.2
수출국 순위		순위	154	133	124	114	115	95
수입국 순위		순위	176	225	155	187	212	57

자료: KITA.net

- 對 아제르바이잔 수입은 미미한 편이었으나 2007년 상반기 원유 수입으로 급증
 - 2006년도 수입실적은 1만 3,000달러에 불과하며 한국의 수입대상국 212위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원유수입으로 57위로 급상승하였다.
 - 2008년도 주요 수입품목은 알루미늄과와 스크랩(3,869,000달러)와 식물성 한약재(4만6,000달러)이다.

아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입품목명(2007)	금액	증가율
	총계	315,648	2,357,420.0
1	원유	315,029	-
2	알루미늄	407	-
3	그림	168	-
4	기호식품	24	-
5	기타문구	13	-
6	유선통신기기	5	-
7	타일 및 도자기 제품	1	-
8	광학기기	1	-
9	면직물	1	-47.8
10	기타 잡제품	0	-

자료: KOTIS, MTI 3단위

아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주요 수출품목

순위	품목명	2007		2008. 1~3	
		금액(US\$천)	증가율(%)	금액(US\$천)	증가율(%)
	총계	130,307	175.2	46,129	149.5
1	승용차	70,564	178.3	27,201	157.1
2	화물자동차	18,409	1,634.1	7,127	1,483.5
3	합성수지	16,804	63.1	5,710	140.5
4	엘리베이터	8,358	131.4	1,308	(42.5)
5	무선전화기	2,028		382	124.6
6	의료용전자기기	1,581	73.1	213	(18.0)
7	X선 및 방사선기기	1,499	381.1	405	(42.1)
8	자동차부품	1,046	71.0	141	268.0
9	건설중장비	995	1,220.5	2,104	8,537.4
10	기타 전자응용기기	652	2.5	273	899.0
11	타이어	511		374	
12	음료	441	155.8	14	(48.8)
13	안료	248	21.7	30	(17.5)
14	시계	220	979.9	23	(61.1)
15	운반하역기계부품	217	3,247.7	31	68.6
16	TV 카메라 및 수상기	186	29.5	44	4.2
17	가열난방기	182	149.2	1	(98.3)
18	계측기	175	101.0	11	(70.4)
19	펌프	113	(79.1)	298	199.2
20	기타 플라스틱제품	109	393.8	88	9,132.2
21	윤활유	102		28	
22	의료용기기	93	373.1	6	(80.1)
23	컴퓨터	86	48.5	3	(75.7)
24	보조기억장치	49		17	
25	전동공구	42	18.4	12	102.3
26	광학기기	41	54.9	6	
27	VCR	36	234.8	18	322.5
28	기타 의료위생용품	32	147.1	11	(31.7)
29	기타 정밀화학원료	22	2,502.2	24	
30	비디오카메라	20	5.2	14	

자료: KITA.net, MTI 4단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출입 제한 또는 허가 품목

- 아래 품목은 수출입시 필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무기 및 군용장비, 폭발물, 무기에 대한 과학지식 및 기술, 우라늄 방사물질 및 핵 기술, 마약 및 향정신제, 혈액 및 혈액성분, 야생동물 및 식물, 자원에 대한 정보, 고미술품, 일부 과학 보고서 나 발명품, 의학 시설, 살충제, 동물용 약제,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수출,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자원 수출 등

- 에틸 알코올이나 술, 담배는 일정한 쿼터가 있으며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성 식품의 수입은 제한되어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의 State Veterinary Committee (SVC)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거대한 위성 안테나 등의 통신 장비는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al Technologies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자연인이 아제르바이잔 역내로 수입할 수 없는 품목 또는 국제우편서비스로 수취가 금지된 물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개인무기,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품, 폭발물, 군장비
 - 방사성 물질
 - 마약, 환각제 및 관련 장비
 - 음란, 폭력 및 테러 선동물
 - 마약, 환각제, 폭발물, 독극물 제조 원료

나. 비관세 무역장벽

빈번히 바뀌는 통관 규정, 세관의 자의적인 관세율 적용, 까다로운 절차 등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4. 관세제도

가. 관세 제도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한해 우선 신고된 가치의 15%, 10%, 5%, 혹은 0.5%의 종가세(ad valorem tax)가 붙는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under-invoicing(탈세를 위해 일부 물품의 가격을 적게 적는 행위)으로 인해 양이나 부피에 따라 종량세(specific tax)나 두 가지 관세를 합한 Combined Tax가 붙는 경우도 있다. 종량세나 Combined Tax는 종가세와 같이 15% 관세를 최고치로 두고 있다.

수입된 품목은 관세를 내기 전에 최고 3년까지 세관 창고에서 보관할 수 있다. 물품이 창고를 떠나는 순간 해당하는 모든 관세를 내야하며 또한 보관료가 청구된다.

전에 상의한 바가 없으면 보관료를 매우 높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필히 세관 창고에 보관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야 한다.

아래 상품을 포함한 일부 수입품은 관세를 면제받는다.

- 외교용품
- 국제기구의 지원 프로젝트에 쓰일 용품
- 임시 수입품
- 해외 기업이 투자한 회사에 일하는 외국인의 개인용품

나. 과세 종류

수입관세율	0%~15% (과중평균관세율- 5.8%)
기타 과세 종류	○ 소비세: 0.08%~12.5 (담배, 술, 휘발유, 차 수입 시) ※ 차: 0.15AZM/cc(2,000cc 미만), 1AZM/cc+300AZM(2,000~3,000cc) ○ 부가세: 18% ○ 통관수수료: 0.15~0.3%(모든 수출입 거래 시 부과)
수출관세	없음(단, 일부 금속 및 금속제품 제외)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07/2008

5. 지적재산권

가. 개요

1996~1997년도에 대대적인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 법규를 정비하고 실행하였다. 현재 Copyright Law, 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 Names, Law on Patents, Law on Topology of Integral Schemes 등 4개의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을 토대로 모든 종류의 산업 재산권(발명품,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copyright) 등이 보호받는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는 없으나 Stat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Patents에서 특허 및 상표 등록을 담당하고 State Copyright Agency에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Eurasian Patent Convention (EAPC) 등의 국제 회의에 가입되어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지적소유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허는 한국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다.

나.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및 상표권 보호기간

상표권은 Stat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Patents에서 관할한다. 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재등록 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소유한 특허 및 라이선스를 기증할 수 있으며 기증 시 필히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허 보호기간

	보호기간	비고
특허	20년	새롭고 실용적이며 독창적인 발명품
실용신안	10년	새롭고 산업적으로 실용적인 개량기술
산업디자인	10년	외부 모양을 결정하는 예술적이나 구조상의 디자인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Baker&McKinsey, 2008. 05

다. 저작권

저작권은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 후 50년간 보호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라. 법적 절차(지적재산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의 침해는 1심 법원은 특허청 심판 위원회(The Appeal Commission of the Patent Office)에게 담당한다. 2심 법원으로는 일반인 및 법인을 상대로 하는 민간 법원과 (District Court, City Court, Supreme Court, 3 단계로 구성) 법인만 상대하는 Economic Court가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제르바이잔 세관(State Customs Committee)과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6. 통관/운송

가. 수출입 신고

□ 화물 수입 시 제출서류

- 서명이 된 수입 계약서(Import Contract). 필히 계약 번호도 적혀 있어야 함.
- 수입 신고서
-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필요 시)
- 수입 화물의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상업 영수증(Sales Invoice)
- 원산지 증명서(C/O)
- 수입 화물의 품질 증명서

□ 화물 수출 시 제출서류

- 기업의 법적 신분 증명서
- State Statistics Committee상의 기업의 법적 신분 증명 번호(Legal Entity Code)
- 계약서 사본(필히 계약 번호가 적혀 있어야 함)
- 원산지 증명서(C/O)
- 공인된 은행으로부터 받은 선불 증명서류, 또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필요 시)
- 수출 화물의 영수증(Sales Invoice)과 수출 화물의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신고서

나. 임시수입(Temporary Import) 및 재수출 제도

아제르바이잔으로 원재료를 수입해 온 뒤 제품 제조 후 일정 시간 안에 다시 재수출을 할 경우에는 Draw-back scheme을 통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연한 절차가 없어 일반 기업이 활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세관에서 제조 및 재수출 시기를 정하며(보통 수입 후 2년) 최소한 일정량 이상을 제조해 수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으로 물품을 임시수입 할 경우 반드시 먼저 세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통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했을 때와 재수출할 때 물품이 일반적인 마모 및 손실 외에는 원상 그대로 수출되어야 한다.

임시수입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관세를 지불하지만 재수출 후 같은 Draw-back scheme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재수출 때와 같이 임시수입 시에도 확인 절차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외국인 투자 개방성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경제 발전에 끼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FDI를 공식적으로는 환영하고 있다. '94년 이래 대규모 외 국인 투자가 유입되면서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보였지만 극심한 관료주의, 허술한 법치제도, 정경 유착된 이해집단의 독점행태는 非 에너지 분야로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 2008년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178개국 중 96위에 올랐는데 이는 주로 'one-stop-shop'이라는 간소화된 회사등록 시스템을 구축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

'92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보호법은 국가 안보 분야처럼 법으로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투자 활동을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통신 및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통제하고 있다. 예컨대, 유전이나 가스전을 개발하려면 국영석유회사(SOCAR: State Oil Company of Azerbaijan)와 생산물분배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금융 부문 외국인 투자는 외국 소유 은행의 비중이 전체 상업은행 시장의 50%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WTO 가입국은 아니지만 2009년 하반기 가입을 목표로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비 에너지 분야에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수불가결하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세부(Ministry of Tax) 내에 'One-Stop-Shop'이라는 간소화된 회사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수 주에서 3일로 단축시켰다.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기업(Joint Venture), 자회사(Subsidiary),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Branch) 형태로 아제르바이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보호법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은 내국기업과 동등한(not less favored) 대우를 받으며 적법하게 세금을 내었다면 과실송금이 보장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불리한 법이 입법되면 이전 법에 의해 10년간은 보호받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은 세법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국유화 및 징발에 대한 보상

외국인 투자자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유화 또는 징발 조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국민이나 국가 이익에 해가 되는 경우, 의회 결의에 따라 해당자산을 국유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 전염병, 비상사태 발생시 내각의 결정에 따라 징발 조치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유화나 징발로 피해를 입었을 경

우 법에 의해 즉각적인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아직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화나 징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 분쟁 해결

아제르바이잔 분쟁 해결 제도는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재산권이나 계약상 권리를 보호받을 효과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법부에 대해 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힘이 없고 판사들은 진보적인 세법이나 경제법을 잘 모르고 경험도 부족하다. 상거래 분쟁을 관장하는 경제법원(Economic Court)의 강제 구속력은 미약하며 일반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결과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국가 간 투자 분쟁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협약,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민사소송법은 외국중재판정이 자국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판정결과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파산법(Bankruptcy law)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거의 유명무실하다.

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및 의무사항

아제르바이잔에는 오일가스분야 생산물분배협정(PSA) 체결시 제공하는 인센티브 외에 다른 어떤 투자 인센티브는 없다.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향후 재투자과 고용승계의 의무를 지게 되나 국내로부터 필요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거나 생산물의 일정량을 수출해야 하는 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국민을 반드시 고용해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당국에 신고 후 노동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내국인과 같이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납세 의무를 진다.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대표 및 부대표(deputy)는 노동 허가가 필요 없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금년부터 노동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마. 자산 소유

아제르바이잔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모기지법(2005), 토지법(1999), 토지 개혁법(1996), 토지임대차법(1999), 토지시장법(1999) 등이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적자나 아제르바이잔 법인(외국 투자기업 포함)은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 매매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임차만 할 수 있다.

바. 재산권 보호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자산등록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동 시스템에는 여전히 불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법무부 산하 공증사무소망을 통한 주택 거래 체계를 구축하였다.

90년대 중반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지원 하에 국가차원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96년에 저작권법, '97년에 특허법, '98년에 상표법이 입법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문학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 협약 등 다수의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가저작권보호청(State Copyright Agency)은 다수의 정부부처 대표자들로 구성된 反해적행위위원회(Anti-Piracy Commission)를 결성하고, 기습검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주도하는 등 다소 개선된 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적재산권 보호는 여전히 잘 되지 않고 있다. 해적판 소프트웨어나 영상물, 짝퉁 명품이 팔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사. 규제 제도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규제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투명성 결여, 부패성 소지 논란은 일고 있다. 투명치 못한 정책,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법규 부재가 외국인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관료주의적인 행정 때문에 필요한 허가나 인증을 받는 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특히 비에너지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부패법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며 각종 규제 제도, 과세, 분쟁 해결제도에 있어 부패 소지가 많다. 정부의 투명치 못한 행정, 규제 남용, 미약한 계약이행 시스템은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고 실제로 이 때문에 굶직한 외국인 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떠났다. 2007년 여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투명성 제고 및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국가 전략(2007~2011)을 채택하고 공무원들의 윤리강령을 도입하였다. 동 전략은 기존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대체, 보완하는 것으로 돈세탁 방지, 회계법 개정, 정부 구매의 투명성 제고, 반부패위원회의 활동 개선, 관료주의적 불필요한 규제요소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7년 부패지수에서 아제르바이잔은 179개국 중 150위에 랭크되어 전년 대비(163개국 중 130위)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 노무

아제르바이잔은 경쟁력 있는 가격의 숙련된 기술 인력을 풍부히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양질의 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우수인력의 외부 유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에 구 소련의 산업경제체제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실업률을 7%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가 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월 최저임금을 40 AZM에서 2008년 60AZM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999년에 발효된 노동법에 따르면 주 노동시간은 40시간이고 파업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국제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국가 연금제도를 개혁 중에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對 아제르바이잔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거의 대부분이 오일가스 부문에 유입되고 있으며 2007 년 말 현재 FDI 순누적액은 미화 98 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의 권위 있는 리서치 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07 년 아제르바이잔 1 인당 FDI 누적액은 미화 1,140 달러로 CIS 국가 중 카작스탄(\$2,200) 다음으로 높다. 아제르바이잔 자본시장은 걸음마 단계여서 포트폴리오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 국가별 FDI 현황은 아제르바이잔 국제석유가스컨소시엄인 AIOC(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 지분 비율로 유추해 보면, 영국(34%), 미국(25%), 일본(14%), 노르웨이(9%), 터키(7%), UAE, 이란,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주요 투자국이다.

2005~2006 년에 BTC(Baku-Tbilisi-Ceyhan Oil Pipeline)나 SCP(South Caucasus Gas Pipeline Project)와 같은 대형 석유가스 프로젝트가 종결되고 외국투자기업의 과실송금이 시작되면서 '06 년부터 대 아제르바이잔 FDI 순유입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아제르바이잔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추세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5 개년 對 아제르바이잔 FDI 순유입액과 오일가스부문 FDI 비중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US\$백만)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DI	3,285	3,556	1,680	-219	-4,750
Oil sector FDI	3,246	3,461	1,459	-573	-5,198
비중(Oil sector/FDI)	98%	97%	86%	-	-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지역별 FDI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해상 및 육상 유전이 위치해 있는 바쿠시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바쿠와 인접해 있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석유 화학 산업단지인 숨가이트(Sumgait)시로 일부 유입이 되고 있다. 향후에는 정유 산업 등 다운스트림 분야로 외국인 투자가 확산될 전망이다.

非 에너지분야 최대 FDI 유입처는 이동통신 부문이다. 동 분야에 Azercell(터키, 스웨덴), Bakcell(이스라엘), Azerfon(독일, 영국), Cartel 4 개의 외국투자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 외국투자기업은 Garadagh Cement, Castel(맥주), Coca Cola, Pepsi Cola, Hyatt Hotels Baku 등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 수는 63 개국 약 200 개 사로 추산되고 있다.

비 에너지 부문 외국인 투치 유치 주요 수단 중 하나는 민영화 정책이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전략적 투자가에 의한 인수' 또는 '입찰' 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 년 30%에서 '07 년 80% 정도로 부쩍 높아진 이유는 일련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국유 자산이 민간부문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투자는 1997 년 1 건 기록 이후 2006 년까지 투자실적이 없었으나, 2007 년 3 건, 2008 년 2 건이 추가되었다. 2007 년 이후 신고건수가 14 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7 년 4 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방한 시 각종 MOU 체결 및 아제르바이잔의 IT, 항만, 도로, 건설 등 인프라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확대를 촉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 아국기업의 자본 투자는 건설 부문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투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건, US\$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7	1	20	1	5
1998~2006	0	0	0	0
2007	9	30,369	3	76
2008	5	2,807	2	2,311
누계	15	33,196	6	2,392

자료: 수출입은행]

- 향후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투자는 조선소(STX), 발전소(한국전력), 레저복합단지(코오롱) 등 인프라 개발 참여활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제르바이잔의 대 한국 투자: 실적 없음.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요

1) 법령 및 형태

- 아제르바이잔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은 ‘외국인투자보호법(1992.01.15)’, ‘투자활동법(1995. 01.13)’, ‘사유화법’ 등이 있다.
-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서 금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에서 열거한 투자 형태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
 - 현지 로컬 법인과 합작기업 설립
 - 100% 출자기업 설립
 - 로컬 기업 인수, 건물 등 자산, 주식 및 채권의 취득 등
 - 토지 및 천연자원, 기타 권리 사용권의 취득
- 외국투자기업은 합작기업, 100% 출자소유기업, 외국법인의 현지 대표사무소를 포함한다.

2) 외국인 투자자 보호 주요내용

- 아제르바이잔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 받는다. 경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특혜를 받을 수도 있다.
-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행위로 발생한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할 권리를 지닌다.
- 법 개정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개정법 적용이 10 년간 유예된다. 다만, 국가 안보, 국방, 공중 보건을 위한 경우나 세법개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국민에게 해가 되거나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국회 결의에 의해 국유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나 전염병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각결의에 의해 몰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두 경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즉시 그리고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 분쟁 발생 시 아제르바이잔 법원 또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투자유치 인센티브

- 아제르바이잔에는 에너지 및 농업 등 특정산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없으며 지역에 따른 인센티브도 존재하지 않는다.
- 아제르바이잔은 안정적인 식량공급 확보를 위해 농업 종사자에게는 토지세를 제외한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 외에 농무부에서는 농가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관련 예산을 1 억 2,000 만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가에 필요한 유류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생산물분배협정(PSA) 계약 체결시 통상 부가세 및 관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PSA 계약자 또는 하도급계약자(subcontractor)는 유전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설비, 고정자산, 용역을 수입하거나 재수출 시 관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통관수수료는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원유 생산이나 수출입 등 모든 관련 활동에 따라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인설립(Company Incorporation)

1) 설립절차

- 등록담당기관은 법무부이며, ‘The Law of State Registration of Legal Entities and State Register’법에 의하여 정의된다. 등록요건 서류는 기업등기부(Company Register), 기업설립 서류(Constituent Document), 은행의 재무확인서(Letter of Good Standing from the bank) 등이다.

- 법인설립등록은 서류접수 후 통상적으로 약 5일이 소요된다. 법인설립 등록절차에 대해 법무부에 허용된 법정소요기간은 10일이며, 이 기간 내 법무부로부터 법인설립 승인 여부나 서류심사 부적격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할 경우, 서류심사 및 법인설립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 등록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은행, 증권거래소, 보험회사, 대표사무소, 지점 설립: AZN 220
 - 농업 관련 법인 설립: AZN 2.2
 - 기타 법인 설립: AZN 11
- 법인은 법무부에 등록 완료되는 시점에 설립된다. 단 세무서(지방세무서 포함), 국가 통계 위원회 등 법인설립과 관련한 유관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헤이그 해외공문서 인증요건 철폐 협약(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에 가입하여 해당 조약 가입국간 문서의 인증 및 공증 절차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2008년 1월 ‘Single Window(One-Stop-Shop)’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15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는 등 정부는 회사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법인설립 형태

- 법인설립 관련하여, 법인의 종류, 유형, 지분 등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규제 및 제한은 없다.
- 외국인투자자는 제한된 사업 기능을 가진 대표사무소, 지점 등을 선택하거나, 완전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법인조직을 선택, 운영할 수 있다.
- 아제르바이잔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며, 영리법인은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세분화 되어 있다.
 -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뉨)
- 이중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회사설립형태는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이며, 아제르바이잔 법령에 의한 두 회사유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구분	JSC(합자회사)	LLC(유한책임회사)
1. 발기인수	- 최소 1명 이상 - 최대 50명(폐쇄형) 50명이 초과될 경우 개방형으로 전환 또는 청산	- 최소 1명 이상 - 법정 최대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음.
2. 발기인의 책임	자본납입액 한도에 대해 책임	
3. 최소자본요건	- 개방형: AZN 4,000(약 US 4,650 달러) - 폐쇄형: AZN 2,000 (약 US 2,300 달러) - 정관자본(Charter Capital): 등록 전 전액 납입 - 현물출자: 독립 감사인에 의한 평가 필요 - 자본가치결정: 1)신규 설립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 회의, 2)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	- 자본요건은 없으나 민법(the Civil Code 2000)은 적정한 행정 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관자본(charter Capital): 등록 전 전액 납입 - 현물출자: 독립 감사인에 의한 평가 필요
4. 증권	- 증권은 국가증권위원회(the State Securities Committee)에 등록되어야 함. - 개방형 JSC 는 공개매수(Open Offering), 폐쇄형 JSC 는 비공개매수(Close Offering) 을 통해 증권 매매	납입자본이 증권일 필요는 없음. 따라서 국가증권위원회 등록이 불필요
5. 지분양도요건	- 개방형: 지분양도제한 없음. - 폐쇄형: 주주들은 타 주주의 지분양도에 우선반대권이 있음.	설립인가서에 따로 조항이 없으면, 사원은 제 3자에게 지분양도 가능함
6.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및 자본금 변경, 청산, 조직 변경 등 중요경영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 감독기구(Supervisory Board): 주주50인 이상의 JSC 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함 - 경영기구(Management Body): 이사회 또는 개별이사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JSC 와 동일 - 단 감독기구는 강제요건이 아니며, 사원이 원할 경우 설치할 수 있음
7. 공시	연차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의무적으로 공시	
8. 청산 및 구조조정	- 자발적 청산, 구조조정은 주주총회 결정에 의함 - JSC 는 LLC 로 조직변경 가능	- 자발적 청산, 구조조정은 주주총회 결정에 의함 - LLC 는 JSC 로 조직변경 가능
9. 조세	조세처분 동일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07/2008', 아제르바이잔 투자청

나. 연락사무소 설립

1) 제도 (Representative Office vs. Branch Office)

아제르바이잔에는 대표사무소와 지사, 크게 2가지 종류의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해외기업의 대표사무소나 지사는 현지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사무소는 현지에 있는 해외 본사의 권리 및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기관이며 이외의 영업이나 기타 본사의 직무집행은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지사는 대표사무소의 모든 직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본사의 영업활동 및 기타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표사무소에 비해 한 단계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2) 설립 및 등록 절차

최근 도입된 One-Stop-Shop 시스템으로 인해 모든 기업 및 사무소의 등록과 설립은 Ministry of Taxes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총 등록비는 약 260달러이며 필요한 서류 제출 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법적인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국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제르바이잔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 있는 모든 서류는 인증된 번역본을 같이 첨부해야 한다. 번역본 인증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쉽게 공증받을 수 있다.

6. 투자입지여건

아제르바이잔은 10개의 경제지구(Economic Region)와 본토와 떨어져 아르메니아에 고립되어 있는 Nakhchivan 자치구, 아르메니아와 분쟁 중인 Nagorno-Karabakh 공화국¹(아제르바이잔의 Yukhari Garabag 경제지구의 주요구역과 Kelbajar-Lachin 경제지구 모든 구역을 포함) 등 크게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12지역은 또한 59개의 구역(District-rayon)과 11개의 도시(sahar)로 나뉘어져 있다.

1) Absheron(압세론)

수도 바쿠(Baku: 인구 205만 명)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은 Absheron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Absheron은 아제르바이잔 국내총생산(GDP)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이다. 주로 낮은 산과 평지로 이뤄져 있으며 기후는 전형적인 아열대 기후이다. 이 지역에는 돌, 석회, 시멘트, 석영(quartz), 벽돌 및 모래가 많고, Samur강과 Kura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공수로가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다.

가스 추출, 석유공학, 석유화학, 철금속과 비철금속의 야금, 에너지, 경공업, 식품가공, 건설, 교통, 서비스, R&D 등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유리과 폴리머(polymer)도 생산되고 있다.

농업은 도시 근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축농업, 채소, 와인, 화초, 아열대 과일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올리브, 사프란, 피스타치오 등의 재배도 가능하다.

이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등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으며 북부에는 해양 리조트가 발달되어 있다.

2) Aran(아란)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첫 정착지인 Aran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반은 해수면 아래에 있는 평지이며 기후는 건조한 아열대 기후이다.

¹ 이 지역은 1990년 초반부터 아르메니아의 군이 주둔해 있다. 1991년 독립선언 이후 3년간 분쟁이 있었고 1994년에 휴전협상을 맺었으나 아직까지 평화협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요 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요오드 브롬광석과 건설자재 등이며 풍부한 태양광과 Kura와 Araz강의 수자원, 거대한 토지 등의 지형적 장점이 있다.

남서쪽은 주로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화학, 기계, 식품, 건설자재 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Mingechevir, Salyan과 Neftchala 구역(rayon)에는 주로 화학공장이 있으며 Ali-Bayramli, Salyan 구역에는 중공업 공장이 주로 있다.

Mingechevie은 면직물, Yevlakh 구역은 모직물 가공, Ali-Bayramli는 가죽, Gazi Mammad의 카펫 등이 주요 산업이다.

Aran은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 바쿠와 그루지아, 이란과 터키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및 철도가 Aran 지역을 통과한다. Yevlakh와 수도 Baku는 비행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Alet-Astra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므로 무역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꿀, 담배, 과일, 녹차, 누에고치, 과일주스, 통조림, 가죽, 아스팔트, 식수, 비단, 가구, 철근 콘크리트 및 건설자재의 제조와 가공 등 다양한 창업기회가 있다.

3) Daglig Shirvan(달리그 쉬르반)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지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평지의 기후는 건조하고 더운 편인 반면 산악지대의 기후는 다소 춥다.

돌, 모래, 찰흙, 암설(detritus) 등의 다양한 건설자재가 매장되어 있으며 산악지대에도 많은 양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아름다운 온천이 많이 있으며 지역 특유의 음식과 풍습 등은 관광지로서의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목축, 포도재배 및 포도주 제조가 주요산업이며 전통적인 카펫 생산도 하고 있다. 다양한 가공 및 제조업 외에도 이 지역에서는 관광업의 사업 기회가 크다.

4) Ganja-Gazakh(간자-카자크)

이 지역은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치로 휴양 및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해발 1500m에는 웅장한 Goy-Gol 리조트와 Hajikend 리조트가 있으며 Naftalan의 기름은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총 GDP의 12~13%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제조업과 가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중공업도 지역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야금산업은 Ganja와 Dashkesan 구역에서 주로 발달되어 있으며 자동차, 농업, 기계, 서비스 및 통신도 주요 산업이다.

아제르바이잔 총 농업의 13~14%, 감자의 80~85%, 포도의 28%, 목축업의 15%가 Ganja-Gazakh 경제지역에서 생산 또는 재배되고 있다.

5) Guba-Khachmaz(구바-카치마즈)

아제르바이잔의 북동쪽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카스피해를 끼고 있다.

농업과 제조업이 주요 산업이며 채소 및 과일 통조림, 어류 가공, 카페트 생산이 이 지역의 특산품이다. 곡물 재배업과 유제품 생산업은 Khachmaz와 Devechi 구역에서 발달되어 있다. 석유화 가스 등의 중공업은 Siyazan의, 전자제품은 Guba의, 고철 제조업은 Khachmaz의 주요 산업이다.

원유, 혈암유(shale oil), 천연가스, 모래, 자갈과 점토가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수자원은도 풍부하다. 이 지역은 요양원과 온천지도 대거 갖추고 있어 관광업이 유망하다. 널리 알려진 Nebran 휴양지 또한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6) Lankaran(랜코란)

남동부에 있는 Lankaran 경제지구의 경우 서쪽과 남쪽에는 이란을, 동쪽에는 카스피 해안을 접하고 있다. 크게 저지대 Lankaran과 산악지대 Talish 지역으로 분류되고 7개의 다양한 기후대가 혼재하여 있다.

벽돌, 모래, 석회 등 다양한 건설자재가 매장되어 있고 울창한 숲과 비옥한 토지가 이 지역의 주된 자원으로 이 지역의 26%가 숲으로 덮여있다.

농업 가공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며 비옥한 토지와 습한 아열대 기후, 충분한 노동력은 농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다. 이 지역에서의 채소, 차, 감귤, 과일재배 및 포도주 제조업은 유망산업분야이다.

Baku-Astara 고속도로와 철도가 주된 교통로이다. 향후 North-South Transport Initiative 정책의 일환으로 이란-아제르바이잔-러시아-북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정비될 경우 무역 중심지로의 부상이 기대된다. 생태관광, 요식업 등의 여가산업 발전이 유망하며, 특히 인접한 이란은 7,000만 인구의 국가로, 이 지역의 거대한 시장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

7) Nakhchivan(나이체반)

옛 실크로드가 통과했던 지역으로 Nakhchivan 자치지역은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떨어져 있으며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에 둘러싸인 자치공화국이다.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국토의 32%는 해발 600~1000m 고도에 위치하고 48%는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 자리잡고있다.

올리브덴과 암염, 백운암, 대리석 등의 다양한 건설자재가 매장되어 있으며 200개 이상의 온천이 흩어져 있다. 농산품의 가공 및 제도가 주요 산업이며 양 목축도 유명하다. 주변에 있는 여행지와 화산지대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란과 터키와는 도로 및 Nakhchivan 공항을 통해 물류교환이 이루어진다.

8) Sheki-Zagatala(셰키-자카탈라)

코카서스 산맥 남부, 아제르바이잔의 북부에 있는 지역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뽑히며 러시아 및 그루지아와 접경하고 있다.

주요 자원은 구리, 황화철강, 납, 아연이며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목축으로 담배, 누에고치, 과일, 곡물류 등을 재배하고 있다.

9) Yukhari Garabag 및 Kelbajar-Lachin (Nagorno-Karabakh 공화국)

Lachin, Kelbajar, Gubadli, Khojavend, Khojali, Shusha, Jebrayil과 Khankendi 구역은 아르메니아 군의 완전지배를 받고 있으며 Agdam과 Fuzuli 구역은 부분적 지배를 받고 있다.

두 지역의 주요 산업 모두 농업으로 포도, 곡물, 과일, 담배 재배를 하고 있다.

금광이 많이 있으며 수은, 대리석, 석재, 코펠, 펄라이트 등이 매장되어 있다.

7. 노무관리

가. 노동시장 개황

아제르바이잔 비즈니스의 주요 강점 중의 하나는 우수한 노동인력이다. 노동인구는 대략 400만 명으로 전문교육 또는 상위교육을 받은 노동인구는 약 120만 명이다. 공식적인 실업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53,862명으로 추산되며, 2007년 1~2월 기준의 월 평균 명목임금은 약 167달러이다.

노동인력 현황(2002~2006)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근로자(천 명)	3,726.5	3,747	3,817	3,850	3,973
평균임금(AZN)	63.08	76.61	96.68	117.9	141.3
실업자수(명)	50,963	54,365	55,945	56,343	53,862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07/2008', 아제르바이잔 투자청

나. 노동제도

노동관계는 노동법(The Labor Code, 1999년)과 하급법이 규율하고 있다. 개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외국법인도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다.

고용계약은 노동관계법 보다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일방이 3일 전 통보로 고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노동기록부는 피고용자가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노동기록을 기입해야 하나, 강제이주자, 난민, 외국인, 무국적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 기록은 피고용자의 국가연금 지 급기준이 된다.

다. 현지 직원 채용

월 최저임금은 60마나트이다. (2008년 기준)

정규노동시간은 주 40시간(특정 노동집단은 그 이하)이다. 국방, 공공안전, 공공시설 공급, 기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초과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노동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 근무 등은 법에 따라 통상임금률의 2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휴무일은 18일(17일은 법정공휴일, 1일은 법정애도일)이며, 유급휴가일수는 최소 21일이다. (특 정노동집단은 그 이상) 병가는 최초 14일 이외일 경우, 고용주가 아닌 국가사회보장기금이 보상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70일, 출산 후 56일이며, 고용주가 아닌 국가사회보장기금이 보상한다.

라. 퇴직제도

고용관계는 고용계약으로 성립되며,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절적 특성을 갖는 노동, 한시적 프로젝트, 당사자간 합의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고용 계약 기간을 한 정할 수 있다.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7일 전까지 계약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주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사유: 근로자의 총체적 노동의무 위반, 잉여인력 발생, 근로자의 자질이 임무 수행에 부적격한 경우, 노동조건의 변화 등)

고용인은 고용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지할(통상만료 전 2개월)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총체적 노동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의 ‘일과 중 구직활동’을 허용한다.

특정 근로자(임산부, 3세 미만 아동 부양여성)와의 고용계약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잉여인력 발생, 작업장 폐쇄, 기업청산 등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인은 최대 3개월 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법정 사회보험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월 근로자 급여의 22%를 법정사회보험으로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급여 총액의 3%를 사회보험으로 원천징수함과 아울러 근로자를 대신해 동일금액을 추가로 국가에 납부 해야 한다.

경영자가 사회보험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업, 운송, 건설 분야의 경우 국가 전체 평균 최소 임금의 약 70%, 기타 업종은 약 40%이다.

8. 조세제도

가. 조세제도 구분

조세제도는 일반조세제도(Statutory Tax Regime)와 석유관련 조세제도(Oil Consortia Tax)로 이원화되어 있다. 석유관련 조세제도는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또는 유사한 협정에 따라 진출한 외국법인에 적용된다.

나. 일반조세

일반 조세는 2000년 조세법과 기타 하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생산물분배협정(PSA)이나 진출국정부협정(HGA)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일반조세는 법인의 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아제르바이잔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은 아제르바이잔에 등록하여야 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07/2008, Tax Code of Azerbaijan)

다. 석유관련 조세

생산물분배협정(PSA), 진출국정부협정(Host Government Agreement: HGA) 등은 아제르바이잔 내 유전개발 또는 송유관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유리한 조세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종류	세율	납세대상자	비고
법인세 (Profit Tax)	22%	모든 법인	과세기준: 발생이윤
사회보장세 (Social Contributions)	25% (이중 3%는 종업원 소득에서 원천징수)	고용주	과세기준: 종업원소득
부가세 (VAT)	18%	부가세 납부 등록(대상)자	과세기준: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
소비세 (Excise Tax)	0.08%~12.5%	술, 담배, 휘발유 제조자 또는 수입자, 자동차 수입업자	자동차의 경우, 엔진 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
자산세 (Property Tax)	최대 1%	자산(건물, 차량 등) 소유자	과세기준: 연평균가치
토지세 (Land Tax)	면적, 입지, 지목에 따라 차등 부과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사용자	-
광업세 (Mining Tax)	3%~26%	광물자원 채굴자	금속: 3 %, 가스: 20%, 원유: 26%
단일종합세 (Simplified System Tax)	4%(바쿠 지역) 2%(기타 지역)	분기 매출이 약 \$26,000 미만이고 소유 자산 가치가 약 \$1,150만을 넘지 않는 영세업자	과세기준: 매출액, 부가세, 법인세, 자산세, 토지세 면세

PSA에서 법인세는 원천징수방식을 따라 지급 가능하다.

원천징수 세금 납부로 아제르바이잔 내 모든 납세(피고용자 및 사회보장 관련 납세는 제외) 및 보고의무가 완료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PSA에 따라 5~8% 수준이다. 또한 PSA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에게도 일반조세제도에 비해 유리한 조세조건이 적용된다.

HGA는 아제르바이잔 조세 면제, 0% 부가가치세 적용, 외국인의 조세상 우대 등 PSA보다 더 유리한 조세 조건이 적용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법

- 법정통화인 Azeri Manat는 1992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정부의 거시경제 방침에 따라 화폐 단 위 변경조치가 단행되어 2006년 1월 1일부로 신 Azeri Manat가 도입되었다.
- 외환거래 관련 기본법은 외환법(Law on currency Regulation, 1994)이며,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Azerbaijan:NBA)이 외환정책 결정권과 외환통제와 관련된 규정 제정권을 갖고 있다.
- 외환법은 해외부채 상환, 로열티, 프랜차이즈 수수료 지급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환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 거주자는 아제르바이잔에 계속적인 거주지를 갖는 개인 및 아제르바이잔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함.
 - 외국 법인의 아제르바이잔 내 지정 및 대표사무소는 비거주자임.
 - 비 거주자에 대한 외환규제가 거주자에 비해 훨씬 덜 제한적임.

나. 외환거래

- 수취인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 특별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한 국내의 모든 지급은 국내통화로 결제한다.
- 외환의 매매 교환은 인가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
- 거주자는 국내은행에 외환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국외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 경상거래
 - 180일 이내 지급조건의 수출입계약 거래대금 송금
 - 180일 이내 지급조건의 수출입거래의 금융제공을 위한 송금
 - 배당금, 이자, 기타소득의 송금
 - 유산, 임금, 연금, 수당 등 비상업적 송금
- 자본거래
 - 해외직접투자
 - 해외증권 매입
 - 해외 고정자산 소유권 및 권리 취득
 - 180일 이상 지급조건의 수출입거래
 - 180일 이상의 해외예금
 - 기타 비경상거래

다. 특별 송금제도

- 송금액 1만 달러 초과: 동 금액이 현금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유입되었음을 입증하는 통관증 명서, 개인의 입국비자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송금이 가능하다.

- 송금액 5만 달러 초과: 외환을 취득한 해외은행으로부터 은행증명서, 현금영수증 등의 자금출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라. 수입대금 선급

- 수입대금은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상품이 180일 이내 에 인도된다는 조건 하에 25,000달러까지 수입대금의 선급 가능하다
-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급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할 때, 허가기준인 '건 전한 거래' 여부는 중앙은행이 일방적으로 판단한다.

마. 과실송금

- 외국인의 투자가 국민과 정부에게 해를 입히거나 자연재해, 전염병, 사고 및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용 및 징발되지 아니 한다. 하지만 만일 이 같은 사항 이 발생할 경우 국 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보상의 의무가 주어져서 수용 혹은 징발 당시 의 투자금이 보상되는데 외화로 지급되고 해외송금이 보장된다.
- 조세를 납부한 후 이익의 송금이 보장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불법 행위로 입게 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물가정보

아제르바이잔은 여타 CIS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수입 공산품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PDP, LCD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서부터 치약, 비누 등 수입 소 비재는 한국보다 비싸다. 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재, 지하철, 버스 등 교통 요금, 휘발유, 디젤 등 석유제품은 한국 보다 저렴하다.

최근 아제르바이잔의 물가인상률은 20%를 넘고 있어 서민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소비자 물가에 불만을 소리 높이고 있다.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여론과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8 월 개최된 내각확대회의에서 가파른 물가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물가 안정을 지시했다.

2008 년 상반기 식료품 및 농산물 평균 인상률은 19.1%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수도인 바쿠는 23.4%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아제르바이잔 두 번째 큰 도시인 간자는 18.5%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 및 인상률은 아래 표와 같다.

(환율: US\$1=0.8 마나트)

품목(kg 당 마나트)	바쿠	%	간자	%	나히치반	%	렌카란	%
소고기	7.0	+40	7.0	+52	6.0	+50	6.0	+36,3
양고기	8.0	+33,3	8.0	+25	7.0	+40	7.0	+40
닭고기	4.20	+31,2	4.20	+31,2	4.40	+37,5	5.0	+56,2
닭내장	4.0	+42,8	4.0	+42,8	3.0	+25	3.20	+23
철갑상어	20.0	+42,8	20.0	+11,1	0.0	-	17.0	+13,3
버터	5.0	+11,1	6.0	-	5.0	-	6.0	-
콩기름(1 리터)	2.70	+22,7	2.80	+27,2	2.80	+16,6	2.70	+22,7
마가린	2.0	+11,1	2.0	-	2.20	-10	2.0	-
계란(10 개)	1.20	+9	1.20	-8,3	0.80	+37,5	1.2	-
설탕	0.70	+16,6	0.85	+21,4	0.80	+14,2	0.80	+14,2
각설탕	0.80	+14,2	0.80	-12,5	0.85	+6,2	0.80	+6,6
소금	0.30	-	0.25	-	0.25	-	0.25	-
밀가루	0.60	+30	0.60	+20	0.65	+30	0.60	+20
파스타	1.10	+37,5	0.85	+6,2	1.0	+25	0.80	+14,2
메밀	0.80	-5,8	0.90	-	0.90	+12,5	0.85	+5
마카로니	0.80	-	0.80	-	1.0	+25	0.80	-
쌀	1.10	+37,5	1.0	+25	0.80	-	1.0	+11,1
우유(1 리터)	1.25	+4,1	0.50	-	0.50	-	0.60	-
Sour cream (100 그램)	0.90	+28,5	0.40	-	0.50	-	0.40	-
Sour milk(1 리터)	0.80	+14,2	0.50	-	0.50	-	0.50	+25
치즈	3.40	+21,4	2.50	-	2.20	-	2.50	+13,6
비스켓	1.70	+6,2	1.50	-	1.60	-	1.60	+6,6
감자	0.60	-25	0.50	-16,6	0.40	+43	0.40	-75
양파	0.40	-33,3	0.40	-25	0.40	+25	0.40	-25
오이	0.80	-38,4	0.60	-150	0.30	-86,3	0.40	+71
토마토	1.0	-50	1.0	-66,6	0.80	-63,6	0.80	-73,3
양배추	0.60	+20	0.50	-	0.40	+25	0.30	-
사과	2.40	+100	2.0	-	2.0	+33,3	1.5	-20
향초(1 묶음)	0.10	-66,6	0.10	-	0.10	-	0.10	-

‘08 년 상반기 신축 아파트는 평균 11.4% 올랐다.

지역별 인상률을 보면 바쿠는 11.1%, 숨가이트는 9%, 간자 및 민게체비르는 10%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은 특히 바쿠 시내 중심가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외곽지역에 두드러졌다. 업계전문가는 물가 상승, 독점체제, 건축자재 인상 등이 아파트값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08 년 상반기 바쿠 신축아파트 가격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시행사	위치	층수	01.01.08 (US\$/㎡)	01.07.08 (US\$/㎡)	변동률 (%)
Germany-Invest LLC	Sahil 지하철	11	2900-4000	3000-4200	+5
Ugur-97 Inshaat	Nizami Street	18	2000	2200	+10
	R.Behbudov -14	14	4000	4000	-
	M. Gashgay		1300	1600	+23
ANT Inshaat	Metbuat Prospekti Avenue	14	900	1100	+22
	Sulutepe	9	500	650	+30
Topaz Inshaat	SamedVurgun 공원 인근	12	1100	1300	+18
	Tebritz(Chapayev) Street	15	1700	2000	+17,6
Inshaatchi MTK	Papanin Street	16	900	1000	+11,1
Huner IOE	4 Micro District	16	900	1000	+11,1
Sharur Inshaat	Ninth Micro District	16	750	930	+24
	Yeni Yasamal	16	700	800	+14,2
Ishig Inshaat İOÊ	Tbilisi Prospekti Avenue	14	1100	1300	+18,1
Accord Inshaat	Hazi Aslanov 지하철역 인근	16	650	704	+8,3

2.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규제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투명성 결여, 부패성 소지 논란은 일고 있다. 투명치 못한 정책,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법규 부재가 외국인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관료주의적인 행정 때문에 필요한 허가나 인증을 받는 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특히 비에너지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부패법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며 각종 규제 제도, 과세, 분쟁 해결제도에 있어 부패 소지가 많다. 정부의 투명치 못한 행정, 규제 남용, 미약한 계약이행 시스템은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고 실제로 이 때문에 굵직한 외국인 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떠났다. 2007년 여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투명성 제고 및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국가 전략(2007-2011)을 채택하고 공무원들의 윤리강령을 도입하였다. 동 전략은 기존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대체, 보완하는 것으로 돈세탁 방지, 회계법 개정, 정부 구매의 투명성 제고, 반부패위원회의 활동 개선, 관료주의적 불필요한 규제요소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7년 부패지수에서 아제르바이잔은 179개국 중 150위에 랭크되어 전년 대비(163개국 중 130위)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3. 진출 성공사례

STX그룹은 2007년 6월 진출이후 진출 약 1년 만인 2008년 5월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미화 4억3,000만 달러의 조선소 건립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SOCAR)가 65%의 대주주로 지분 참여를 하며, STX 및 국영투자회사인 AIC(Azerbaijan Investment Company)가 각각 25%, 10%의 비율로 참여한다.

STX는 2008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연내 조선소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조선소 완공은 착공 시점에서 2년이 걸릴 예정이며 STX는 조선소 완공 후 운영도 담당하게 된다.

그 밖에 SK C&C는 아제르바이잔 교통부와 1년간의 협상 끝에 미화 5,500만 달러의 교통 통제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8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다.

4. 이주정착 가이드

아제르바이잔 생활환경은 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식료품 구입에서 호텔 피트니스 시설 이용 등 대부분의 현대적인 편의생활이 가능하다. 석유 수출로 유입되는 오일 머니로 높아진 구매력 탓에 바쿠 시내 쇼핑센터에는 소위 명품 숍이 줄지어 생기고 있고,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등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돈 많은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무선 통신망은 전국의 80%까지 보급되어 있으며 바쿠시에서는 ADSL 수준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도로망은 포장상태 등 아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나 바쿠와 주요 도시를 잇는 도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향후 3~5년 후에는 도로망도 잘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 처리시스템은 현재 거의 전무한 상황이어서 환경오염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모기업과 동 프로젝트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갑작스런 단전 및 단수도 여전히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끔씩 생활의 불편을 겪는다.

바쿠시는 도시의 반이 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상복합, 오피스 건설이 한창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바쿠의 아파트 및 사무실 임차비는 서유럽 어느 도시 못지않을 정도로 높다. 현재 외국인이 거주할 만한 안전하고 깨끗한 아파트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 큰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다. 사무실은 주택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않아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나 2~3년 후 건축 중인 오피스 건물이 완공되어 시장에 공급되면 이 문제도 자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치안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유럽 국가 대비 범죄율은 낮은 편이며 안전하게 거리를 보행 할 수 있다. 물론 어두운 밤거리를 다니는 것은 피해야 하며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큰 돈을 꺼내 보이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복장과 관련, 남자들은 더운 여름철에도 항상 긴바지를 입고 다니며 여자들은 유행에 맞춰 좀 더 편안하게(심지어 미니스커트도)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영어를 많이 배우고 있으나 아제리어나 러시아어를 모르면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아제르바이잔 의료 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특히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바쿠는 그나마 현대적인 의료장비와 숙련된 의사가 있어 경미한 수술은 가능하나 복잡한 대수술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5. 출장가이드

가. 기후

아제르바이잔은 주로 온대성기후이나 건조아열대기후에서 산지툰드라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평야는 건조한 온대기후, 남동부의 렌카란 저지는 습윤한 아열대기후, 이란 인접지역은 온대대륙성 기후, 해발 2,000m 이상의 산지는 한랭한 기후지대이다.

연평균기온이 평야는 0~15℃로 다양하고, 고산지대는 0℃ 이하이다. 평야지대의 1 월 평균 기온은 0~3℃, 중간산지는 영하 3~영하 6℃, 고산지대는 영하 10℃ 이하이다. 평야지대의 7 월 평균기온은 25~27℃이며 여름철에는 최고 43℃까지 상승한다.

강수량은 지역적 차이가 크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압세론 반도의 남부해안, 쉬르반 남동부, 고부스탄 남동부 등지로 연강수량이 200mm 이하이다. 쿠라 저지의 동부, 나히체반 지방의 아라크스강 유역도 200~300mm 에 불과하다. 소카프카스산맥과 대카프카스산맥의 북동사면은 600~800mm, 대카프카스산맥의 남사면은 1,000~1,300mm 이나 되며, 2,000mm 를 넘는 곳도 있다. 렌카란 평야 남부와 탈리쉬 산맥의 산록은 1,100~ 1,700mm 이다. 렌카란 지역에서는 강수의 대부분이 겨울에 집중되며, 산간지역이나 구릉지에서는 4~9 월 사이에 집중된다.

나. 시차/근무시간

아제르바이잔 시간은 ‘GMT+4 시간’이며 한국과는 하절기(서머타임 실시)에 4 시간, 동절기엔 5 시간의 시차가 있다.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주 40 시간이며 토, 일요일을 제외한 주 5 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상점이나 슈퍼마켓 등은 제외) 국방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초과근무시간 또한 노동법에 규정된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시간외근무시 초과수당은 정규 근무시간 임금의 최소 2 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60 마나트(약 미화\$71) 이다.

다. 출입국/비자

-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는 외국인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
 - 비자 신청서 사본
 - 여권용 사진 또는 여권 사본
-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은 3일에서 3개월이다. 복수비자는 아제르바이잔 출·입국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일년까지 유효하며 비자 유효기간 동안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로 된다.
- 아제르바이잔에서 떠날 때 외국인은 출국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 출국 비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출국하는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로 된다.
-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가는 외국인들도 단수 혹은 복수 경유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지참한 외국인은 아제르바이잔에서 5일 이내로 머물 수 있다.

-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자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자만료일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비자신청서 사본
 - 여권 원본 또는 재입국 허가증
 - 수수료 영수증
 - 초청장
- 아제르바이잔에서 한달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비자 비용은 아래 표에 명시되어 있다.

비자 비용

(단위: 달러)

비자 종류	비자 비용
단수 비자 (3일~3개월 이내)	40
더블 비자	80
복수 비자 (1년 이내)	250
학생 비자	20
경유 비자	20
더블 경유 비자	40
비자 연장 (24시간 이내)	10
비자 연장 (48시간 이내)	20
비자 연장 (72시간 이내)	30
비자 연장 (3일~1달 이내)	40

- 비즈니스 목적으로 아제르바이잔으로 오는 외국인은 노동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 허가증은 노동부와 사회보호부(Social Protection)에서 발행한다. 노동 허가서는 1년 동안 유효하다. 이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속 4회 이상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의 경우에는 노동 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영주권자, 기업가, 국제협약을 통해 세워진 기업 경영자, 외교 사절 단, 국제기관 직원, 재외공관 직원, 사업가(3개월 이내 거주하는), 집행 당국 직원, 정부에 등록된 선교사들, 대중 매체 직원, 선원, 스포츠맨, 예술가, 대학 연구자와 교수들.
- 노동부와 사회보호부(MLSP)에서 노동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MLSP에서 발행한)
 - 허가증 사본
 - 추천서 사본

라. 교통/통신

1) 교통

□ 육상교통

바쿠시의 교통수단은 지하철, 미니버스, 택시 세 가지가 있다. 지하철 요금은 5 케픽(=0.05 마나트)으로 무척 저렴하며 2 개의 노선이 있다. 2 마나트 짜리 카드 구매 후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I 있다. 미니버스 요금은 20 케픽이며 현금을 내고 이용한다. 지하철과 미니버스 운행시간은 대략 06:00AM~12:00PM 이다. 택시는 한국에서처럼 미터기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매번 이용시마다 흥정해야 한다. 바쿠 시내에서 시내로 이동시 택시운전기사는 보통 4~5 마나트 지불을 요구한다.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바쿠 시내로 들어올 경우, 보통 미화 30 달러 정도를 요구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철로는 두 개의 주요 노선이 있는데 그 중 한 노선은 카스피해를 따라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나 있으며, 다른 노선은 바쿠에서 그루지야 국경까지 M27 노선과 평행하게 깔려 있다. 철도를 이용하여 바쿠에서 그루지야까지 갈 경우, 약 14~17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객차 등급에 따라 35~50 마나트가 소요된다.

□ 해상교통

카스피해는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여서 바쿠는 국제 항구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1990 년 중반 이후 연간 20%의 비율로 성장해 오고 있다.

바쿠에서 카스피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시와 이란의 반다르안잘리, 반다르나우사 등으로 갈 수 있다.

□ 항공교통

항공운송은 1931 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바쿠, 간자, 나히체반 세 곳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바쿠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카작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와 터키, 이란 등 주변 인접국가의 주요 도시로 가는 항공편이 개설되어 있으며 국내 주요 항공로는 바쿠~나히체반 항로이다.

2) 통신

□ 유무선 통신

아제르바이잔의 일반 전화 보급률은 매우 낮다. 2007 년 기준 약 110 만 명 정도만 유선 전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골 변두리에는 공공전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쿠 시내에서도 공공전화는 찾아 볼 수 없다. 반면, 무선통신의 경우, 1994 년 아날로그식 이동 통신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GSM 방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았으며 아제르셀(Azercel), 박셀(Bakcell), 아제르폰(이상 GSM), 카텔(CDMA) 4 개의 이동통신 회사가 경쟁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8 년 6 월말 현재 500 만 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역은 전국의 약 80%에 이른다. 바쿠 시내 도처에 서비스망이 있어서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다.

□ 인터넷

아제르바이잔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는 약 86 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일반 가정에서만 아라 인터넷 카페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전화접속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ADSL 수준의 고속 인터넷 이용도 가능하다. 고속 인터넷 요금은 1GB 에 약 미화 30 불 정도로 비싼 편이라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마. 공휴일

아제르바이잔 노동법에 의하면 공식 휴무일은 18 일이며, 그 중 17 일은 국경일, 1 일은 추모일이다. 만약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바로 다음 근무일이 자동적으로 휴무일이 된다. 선거일 또한 휴무하며, 만일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법에 규정된 유급휴가일수는 최소 연 21 일이다.

공휴일

1. 1~2	신년
1. 20	추모일
3. 8	여성의 날
매년 바뀜(3 월)	Novruz Bayram(고대종교신년)
5. 9	승전기념일
5. 28	공화국의 날
6. 15	국가 구원의 날
6. 26	국군의 날
10. 18	독립기념일
매년 바뀜(10 월)	Ramazan Bayram(금식제)
11. 12	제한절
11. 17	국가재건일
12. 31	아제르바이잔 연대의 날
매년 바뀜(12 월)	Gurban Bayram(희생제)

바. 유용한 연락처

정부부처

기관명	주 소	전화(994-12)
경제개발부	23 Niyazi St., Baku, AZ1066	492-41-10
문화관광부	40, U.Hajibayov St., Baku AZ1016	493-43-98
내무부	7, Husu Hajiyev St., Baku, AZ1005	490-92-22
외무부	4, Sh.Gurbanov St., Baku, AZ1009	492-96-92
국세부	16, Landau St., Baku, AZ1073	403-86-32
재무부	83, Samed Vurgun St., Baku, AZ1022	493-81-03
국가안보부	2, Parliament Avenue, Baku, AZ1006	493-76-22
교통부	Block 1054, Tbilisi Ave., Baku, AZ1000	431-46-36
농림부	40, U.Hajibayov St., Baku AZ1016	493-28-92
국방부	3, Parliament Ave., Baku, AZ1073	439-41-89
비상사태부	57, Tbilisi Ave., Baku	512-00-61
환경자원부	100A, Bahram Agayev St., Baku, AZ1033	438-15-21
정보통신부	33, Azerbaijan Ave., Baku, AZ1000	493-00-04
산업에너지부	88, Zardabi St., Baku, AZ1112	447-05-88
법무부	1, Inshaatchylar Avenue, Baku, AZ1073	430-09-77
교육부	49, Khatai Avenue, Baku, AZ1008	496-35-15
노동부	85, Salatin Asgerova St., Baku, AZ1009	596-50-34
관세청	2, Inshaatchylar Ave., Baku, AZ1073	438-80-80
통계청	Inshaatchilar Ave, Baku, AZ1136	438-6498
중앙은행	19 Bul-Bul Av.	493-11-22
석유공사(SOCAR)	73, Neftchiler Av.	492-17-89
석유재단(SOFAZ)	20, Bul-Bul Ave., Baku, AZ1014	498-77-53
상공회의소	73 Fatali Khan Khoisky St.	495-68-36
수출투자진흥공사(AZPROMO)	11, Hasan Abdullayev street Baku, AZ 1001	598-01-47

기타 유용한 연락처

구 분	기관명	번호(994-12)
대한민국 공공기관	주 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	596-7901~03
	KOTRA 바쿠 무역관	436-7560~61
공증사무소	Notary's Office #1	493-4514
통번역 서비스	VneshExpertService Consulting Company	492-9277 / www.vneshexpertservice.com
주요 호텔	Park Hyatt Baku	490-1234 www.baku.hyatt.com
	Grand Hotel Europe Baku	490-7090 / www.europehotel-baku.com
	Radisson SAS	498-2402
	Park Inn Azerbaijan	490-6000 / www.baku.rezidorpark inn.com
자동차 렌트	AVIS	497-5455
	HERTZ	497-8757
긴급전화	소방서	-101; 4910734
	경찰서	-012; 4934265; 4958817
	응급차	-103